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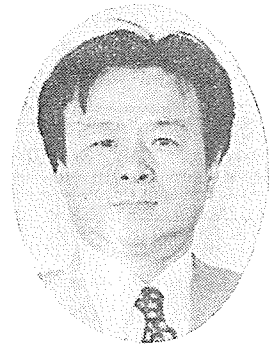
Vatican의 聖 Pietro大寺院

壯麗한 370本の 石柱 10年 工事의 大廣場

미켈란제로의 freehand 設計



사진 : 聖Pietro大寺院의 370本の 石柱



漢陽大學校 教授
建築設計 專攻

工博 金 眞 一

로마를 訪門하는 者는 地球上 超 미니國家인 Vatican皇國과 여기에 위치한 世界에서 第一 豪華스럽고도 壯嚴하고 第一 큰 寺院, 聖·pietro大寺院을 놓지려 하지 않는다.

事實, 이 施設(建築物)을 觀望하고 나면 그후 世界의 어디서 어떠한 建築物을 보아도 感嘆詞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旅行者는 가능하면 聖 pietero 大寺院은 旅行의 마지막 코오스에 넣어야 餘他의 建築物에 대하여 失禮가 되지 않는다.

아시다 싶이 로마는 原來 기독교受難의 땅이다. 5萬의 觀客을 수용할 수 있는 클로세움은 古代로마의 大闘技場이었으며, 暴君 베로는 여기에 기독교 教徒를 넣고 獅子 등의 맹수를 풀

어 놓았다.

聖 pietero가 베로皇帝의 迫害를 피하여 로마를 빠져나가든중 예수의 幻을 보고 Que vadis라 묻고, 그의 答에 용기를 얻어, 다시 로마로 들어가 處刑되었다는 pietero受難의 땅이다.

西紀 313年 기독교가 公認이 되고, 處刑된 pietero의 墓所로 시작된 이곳이 โรม안-카톨릭教會의 千年城이 다름아닌 聖pietero寺院이다. 1452年 pietero의 墓所인 이 寺院의 本格的인 建設은 Bramante의 設計와 더불어 舊寺院을 철거함으로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近 200年후인 1626年에 完成되기까지 여러 사람에 의해 計劃의 修正이 거듭되었으나 가장 크게 影響을 준 者는 鬼才 미켈란제로였다.

이 時期는 로마法王의 세력이 가장 伸張되었던 時代였으나 寺院 工事費의 不足으로 天堂入場券인 免罪符를 발행하였다. 1507年 2月 16日 茱麗亞스 2世의 詔書에서 免罪符를 求得하려는 者가 스스로 로마에 오기를 願치 않을 경우에는 稅金을 보낼 지이다 라고 命을 내리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의 詔書를 통하여 多額의 工事費 조달성과를 올렸으나 敎皇廳의 위신은 말이 아니었다.

이 免罪符는 字義대로 精神의 救援의 證券이어서 훗날 宗教改革에 관한 禍根이 되었다. 敎會史는 이에 관하여 “이리하여 聖 pietro新寺院의 物質的 建築은 그 精神的 建築의 대부분을 파괴시키는 結果를 초래 하였다고 하였으며, 또 이 巨大한 造堂事業에 소비된 다액의 資金을 조달할 궁색 때문에 敎皇의 후계자로 하여금 異端者 Luther의 蜂起를 촉구하였다”라고 하였다.

大寺院의 近 200年間의 造營은 여러차례 中斷되는 위기도 있었으나, 그중 設計에 열킨 論爭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있었다.

前任者의 計劃案을 이어받은 자가, 그 設計는 마치 追放당한 者에게 命을 命을 제공해 주고, 貨幣偽造를 돕게 하며, 修女에게 受胎케 하는 따위의 못된 짓에 좋을상 싶은 兇惡한 구석이 많다. 아마도 저녁마다 25명 정도의 把守兵으로 하여금 守衛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니, 좀 거북스러운 걱정을 더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비꼬아 酷評하기도 하였다. 이 한마디로 이 寺院 内部의 規模의 巨大함이 엿보일 것이다.

그러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朕이 敎皇이 된 것은 그대에게 分明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베루니니(1598—1680)가 敎皇權위에 있게 된 것은 우리로서도 더욱 多幸한 일이라고 칭찬을 받은 者도 있었다. 이 칭찬을 받은 베루니니는 官能的인 美의식을 충족시켜준 藝術家이며, 미켈란젤로에 의한 本堂이 建立된 후 그 前面 廣場計劃은 橢圓形의 大回廊을 370本의 石柱로 둘러는데 그 壯麗함을 世界에서 類를 찾을 수 없다. 廣場의 工事만에도 10餘年이 소비되었고, 이 廣場과 本堂의 調和된 구성은 聖 pietro大寺院을

施設로서 地球上 가장 有名한 名所로 만들었다 루네쌍스時代 寺院의 中央 Dome의 劇的構成을 위해 미켈란젤로는 周圍 4개의 작은 Dome를 聖堂의 角壁쪽으로 近접시켰으며 正面을 최소한의 규모로 억제하여 모두가 中央 Dome에의 仰高眺望을 트이게 하였다. 이 外觀處理手法은 汝矣島에 9월에 完工시킨 國會議事堂과 대단히 對照가 되는 것으로 본다.

한편 寺院의 東西南北 軸의 길이는 각각 172 m, Dome의 직경 43m 그리고 그 높이는 132m 인데 이 設計圖는 미켈란젤로의 free hand로 그려졌고 아무런 치수의 記入도 되어 있지 않아 오직 그의 머릿속에 모든 것이 있는 셈이다. 또 역시 그의 力作인 本堂의 브론즈의 聖 pietro像 발끝은 그 많은 參拜者들의 경건한 입 마춤으로 인하여 달아서(減) 빛이 나고 있다.

年中 季節에 구애받지 않고 밀려드는 觀客을 위해 案内者의 解說도 伊·英·佛의 3개 國語로 나누어 各者 편리한 곳에 가서 說明을 들도록 되어 있는 것도 흥미있는 光景의 하나다.

300世帶의 아파트人口와 맞먹을 總人口 約 1,500名에, 國土의 넓이 0.44km²의 이 世界最小의 나라는 Rome法王이 통치하는 vatican皇國이다. 여기에는 獨立된 財政과 경제가 있고, 獨立的인 郵票와 通貨를 발행되고 있으나 國境과 稅關은 없다. 다른 나라와 같은 政治國家가 아니고 宗教로서 支配權力을 행사하는 獨立된 宗教國임으로 君主가 아닌 法皇이 지배하는 政界의 나라다.

어지러운 時代에 政治的術策에서 떠나 오히려 武裝된 나라들에 의해 지켜지면서 宗教, 文化, 藝術면에서 무한한 價値를 保護받고 지내고 있다. 이러한 存在는 지금 곧, 銃彈이 날아올듯한 우리의 休戰線이나, 東西伯林의 높다란 담과 그 위에 설치된 발리케이트를 본 筆者에게는 이 王國의 存在가 羨望의 興味를 넘어 不可思議가 아닐 수 없다. vatican의 이러한 힘과 믿음은 聖 pietro寺院이 있음으로 더욱 보장된다는 것은 이 寺院의 機能이 단순한 建築物의 意義를 초월한 모든 측면에서도 世界第一이 아닌가 싶다.